

대한제국 선포 직후 고종의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

장경호

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

historygo@nate.com

- I. 머리말
 - II. 러시아의 고종에 대한 신변 위협
 - III.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 이전 미국의 태도
 - IV.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와 미국의 활용
 - V. 맺음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고종의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와 한미관계(1894-190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2018)의 제3장 2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고종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미국에 호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고종은 미국에 거중조정(居中調整)을 요청하였다. 또한 초대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가 제물포를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서울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푸트는 “미국은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마지막까지 조선에 머무르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고종에게 신뢰감을 주었다.¹ 미국인 선교사들과 주한미국공사 쉴(John M. B. Sill) 역시 고종의 곁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후 청일전쟁 직전 고종은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했으며,²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 당시도 미국인들은 관련되어 있었다.³

한편, 미국은 조선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 주재 미국인들, 특히 쉴은 고종의 미국공사관으로의 파천시도와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고종을 도우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⁴

결국, 고종은 러시아에 도움을 청했고,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이후에 권력을 얻은 러시아어 통역관 김홍륙(金鴻陸)과 러시아공사 쉬삐에르(A. H. Шпейер)는 고종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국공사관으로의 파천을

1 FRUS, Korea, No. 231. Mr. Foote to Mr. Frelinghuysen, 1894, 12. 17, p. 333.

2 장경호, 「청일전쟁 직전 고종의 대미의존 심화와 美館播遷 시도」, 『한국근현대사연구』 86호(2018a).

3 춘생문 사건이 미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은 홍경만, 「춘생문사건」, 『이재룡박사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한울, 1990); 장경호,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춘생문사건 당시 미국의 태도」, 『강원사학』 31호(2018b).

4 장경호(2018b), 위의 논문, 81-83쪽.

요청하였다.

1897년-1898년, 대한제국 선포 직후 황제권을 강화하려 했던 고종이 미관파천을 시도했다는 점은 그의 기반이 아직 미약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세력 재편을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해야 한다. 고종의 아관파천을 비롯한 타국 공사관의 이어(移御) 등은 고종 자신의 절대권력 추구를 위한 행위이며,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전후로 단계적인 권력 확보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⁵ 고종이 황권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1899년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한 이후라는 점에 있어서,⁶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가 이뤄지는 시기는 황권 강화를 위한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선포 직후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한제국 초기에 해당하는 1897년 말에서 1898년 사이에 고종이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 정도였고,⁷ 아직까지 미관파천의 배경 및 전개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직 없었다.

여기에서는 미관파천의 배경을 설명한 이후, 대한제국기 발생한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와 미국의 대응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종이 미관파천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다.

5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호 (2003), 82-84쪽.

6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7 한철호, 『친미개화파연구』(국학자료원, 1998); 김윤희, 『이완용평전』(한겨레출판사, 2011), 82-87쪽; 현광호, 『개항기 조선』(유니스토리, 2015), 112-113쪽.

이 당시의 미관파천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한 시기 미국 외무부 문서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약자: FRUS)와 한국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2차 편집한 Korean-American Relations(약자: KAR)⁸, 주한미국공사관·영사관기록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Korea(약자: DUSMK)⁹를 살펴보았다. 이어 한국측 자료인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이외에도 개인 일기인 『윤치호일기』, 『뫼텔주교 일기』를 살펴보고, 러시아의 위협과 이에 따른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와 미국 측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러시아 문서¹⁰, 『구한국외교문서』 등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제국 선포 직후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의 배경, 과정 및 대한제국 기 주요 정치 세력구도가 전환되는 과정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8 FRUS는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웹으로 전문 확인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개항기 한미관계 연구의 핵심이 되었던 Korean-American Relations는 크게 3개로 나뉜다. George C. McCune and John A. Harrison, eds., *Korean-American Relations, 1883-1886*(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Spencer J. Palmer, e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7-1895*(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Scott S. Burnett, ed., *Korean-American Relations, 1896-1905*(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등이 있다.

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국공사관·영사관기록』(2000). 마이크로 필름화 된 자료인 De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Korea, 1885-1905(M134) 22 Rolls와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Consuls in Seoul, 1886-1906(M167) 2 Rolls를 기초로 편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전후 시기 미국과 대한제국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1897년과 1898년에 해당하는 Vol. 13을 주로 살펴보았다.

10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원 연구총서,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 V』(선인, 2011).

II. 러시아의 고종에 대한 신변 위협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위협을 느낀 고종이 궁궐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춘생문사건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선에서의 반일분위기는 여전했고, 고종은 더욱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할 것임을 타진하였다.¹¹ 러시아는 1895년 10월 27일, 이미 국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승인한다고 했다.¹² 그런데 당시 대리 공사 쉬뻬이에르는 전신선이 망가져서 러시아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병사 수가 적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다. 그런데 쉬뻬이에르는 많은 수의 무장 군인을 파병해 줌으로써 고종에게 확신을 주었고, 100명의 러시아 해병이 비밀리에 제물포에서 서울로 파견되었으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겠다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였다[俄館播遷]. 이후 고종은 외교단 대표와 씬을 불러서 파천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였다.¹³ 고종은 군사적 파견이 확실시된 이후에야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을 결심한 것이다.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고종은 친일파를 즉각 처단하였다. 김홍집(金弘集)은 흥분한 군중에게 피살되었고, 유길준(俞吉濬)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친러파가 득세하기도 했지만, 친미파도 내각에 많이 기용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조선 내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다.¹⁴ 하지만 미국무장관 존 셔먼(John

11 АВПРИ. Ф.150, Оп.493, Д.5, лл.5-6о6(김종현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선인, 2011), 223쪽).

12 АВПРИ. Ф.150, Оп.493, Д.215, лл.235о6(홍용호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V』(선인, 2011), 297쪽).

13 АВПРИ. Ф.150, Оп.493, Д.5, лл.25-31о6(김종현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선인, 2011), 218-222쪽).

Sherman)은 주한미국공사에게 “아관파천시 조선의 외교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¹⁵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자신의 신변을 호위하기 위하여 군제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는 아관파천을 전후하여 친위대를 증강하였고,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였다. 친위대는 1896년 3월 5개 대대 4,400명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4월 22일에 확대 개편되었다.¹⁶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해 있던 1896년 9월, 고종은 외국인 거주지와 접해있는 경운궁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¹⁷ 고종은 이때부터 친미파를 중심으로 한성도시개조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이 시기에는 러시아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고종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려면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프랑스 선교사 뫼텔은 “러시아가 조선 점령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할 정도였다.¹⁹ 아관파천 직후 일시적으로 친미파인 박정양 내각이 수립되었다고 해도, 친러파세력들은 고종의 신변

-
- 14 이민원,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국학자료원, 2002), 125쪽.
- 15 『미국의 대한정책(1834-1950)(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1 Department of State, U.S. Unites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1834-1950))』(한림대학교 출판부, 1987), 25쪽.
- 16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혜안, 2000), 62쪽, 169-170쪽.
- 17 *KAR III*,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1896. 9. 1, p. 21. 사실 고종이 경운궁에 관심 있었던 것은 3년 전인 1893년 10월이었다. 고종은 선조 환도 5주갑(300주년)을 맞이하여 즉조당에서 전배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0년(1893) 10월 4일). 이 날 고종은 알렌에게 물어 미국인 선교사들을 이 근처에 살게끔 요청했다. 알렌은 이것을 고종이 외국인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라고 보았다(*KAR II*, H.N.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3. 10. 6, p. 235).
- 18 이 도로개조사업은 이후에 고종 황권강화의 상징이나 다름없지만, 그 사업의 범위가 크지 않았던 만큼 대한제국의 권력기반도 협소했다는 평가가 있다(전우용, 『서울은 깊다』(돌베개, 2008), 205쪽). 사업의 주도세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 『향토서울』 50호(1990);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 한철호,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도시개조사업과 그 의의」, 『향토서울』 59호(1999)이 참조된다.
- 19 『뫼텔주교일기』, 1896년 1월 15일.

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조선의 이권에 관여하였다.²⁰

고종은 경운궁에서 환궁(1897년 2월 20일)할 시기에 러시아 군대의 도움을 받았고, 베베르는 고종의 환궁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러시아 군사고문관 뿌짜따 대령은 고종의 환궁시 곁에 있기도 하였다.²¹ 1897년 1월 러시아 조선주재군무관 총참모부 대령 스트렐비치키는 “왕의 신변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²²고 할 정도로 조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국제 정세상으로도 러시아는 조선에 집중했다. 로바노프-아마가타(모스크바 의정서)협정 이후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는 “러시아가 요동 반도의 항구로 연결된 철도 부설을 청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선에 집중할 것”을 러시아 재무장관 위테에게 간언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²³

러시아 세력이 조선에서 힘을 얻게 되자 러시아어 통역관이었던 김홍륙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는 고종의 신변을 위협하였다.²⁴ 김홍륙은 춘생문사건 당시 친미파들을 미국공사관으로 도피시킨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미파는 아니었다. 주한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은 그에 대해서 “매우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한자도 읽고 쓰지 못하지만, 러시아어를 잘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베베르와 쉬삐이에르는 “김홍륙

20 1896년 2월부터 러시아는 경원·경선 광산채굴권(1896년 4월),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1896년 9월), 무산·압록강유역·울릉도 삼림벌채권(1896년 9월),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1897년 10월), 한아은행 설치(1898년 3월) 등의 이권 침탈을 했으며 이는 일본이 주도하던 이권침탈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넘어갔다가(운산금광 채굴권(1895년 7월), 경인철도부설권(1896년 3월, 1898년 12월에 일본에 매각)) 러시아에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신용하, 『독립협회연구(上)』(일조각, 2006), 193쪽).

21 KARIII, John M.B. Sill to Secretary of State, 1897. 2. 22, p. 24.

22 АВПРИ. Ф.150, Оп.493, Д.7, ЛЛ.94-97о6(이원용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I』(선인, 2011), 48쪽).

23 A. 말로제모프 저,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지식산업사, 2002), 139쪽.

24 이와 관련해서는 장경호, 「아관파천 전후(1896-1898) 정치권력 변화와 김홍륙 독차 사건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81호(2017) 참조.

은 금전 문제에 관한 행위로 조선인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지만, 이것은 조선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며 그를 옹호해주었다. 알렌은 "김홍륙이 아무도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를 고종에게 가했다."라고 했다. 김홍륙은 독립협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이었다.²⁵

김홍륙뿐만 아니라 아관파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도 고종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다. 그는 1884년과 1885년 두 차례에 걸친 한러밀약설과 관련이 있었고, 1896년 2월 아관파천 당시 주일 러시아 대리공사로 임명되었으며, 1897년 8월에 주한 러시아공사로 부임하였다.²⁶ 아관파천 직후 쉬뻬이에르는 "고종은 자신의 운명을 애통해하며 러시아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자를 비롯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서²⁷ 고종의 신변 보호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확신하였다.

한편, 친미파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득세에 제동을 걸었다. 1897년 2월부터 독립신문과 서재필은 친러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쉬뻬이에르가 부임한 1897년 8월, 정부는 미국공사관에 《독립신문》의 폐간을 요청하였다.²⁸ 러시아의 조선주재군무관 총참모부 대령 스트렐비치키는 "미국이

25 *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3. 14, pp. 41-42; 이민원(2003), 앞의 책, 203쪽.

26 김영수, 「주한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역사학보』 233호(2017), 154쪽에는 1897년 8월에 부임했다고 되어 있고,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上)』(일조각, 2006), 80쪽에는 9월 7일에 부임했다고 되어 있다. 쉬뻬이에르는 1897년 8월 26일에 일본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김영수, 「서울주재 베베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서울과 역사』 94호(2016), 23쪽), 8월 26일-9월 7일 사이 조선에 부임한 것으로 추측된다.

27 АВПРИ, Ф.150, Оп.493, Д.5, ЛЛ.5-706(김종현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선인, 2011), 211-213쪽).

28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上)』(일조각, 2006), 67쪽, 780쪽. 이에 대한 내용은 《독립신문》 1897년 11월 11일자 참조. 김영수(2016), 앞의 논문, 167-171쪽. 해링턴도 쉬뻬이

청일전쟁 이전과 달리 영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협회와 시위대를 조직하는 등 조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²⁹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간 베베르와 가까웠던 알렌도 친미파에 비판적인 쉬삐이에르가 부임하자 이를 달갑지않게 생각하지 않았다.³⁰ 쉬삐이에르는 반러운동과 뜻을 같이하는 특정한 미국인 고문관들, 그리고 독립협회 편집장 서재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³¹

윤치호는 “러시아 공사 쉬삐이에르가 러시아의 이권을 위하여 김홍륙을 통해 고종을 협박하였다.”라고 했다.³² 알렌도 “조선 내각의 급격한 변화가 새로운 러시아 공사의 강압적인 제안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쉬삐이에르가 베베르가 하는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친미파 관료들을 박해함으로써 미국을 모독하고 있다.”고 했다.³³ 게다가 대표적 친미파인 박정양(朴定陽)이 사임했을 때 고종은 “러시아파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박정양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보려고 했으나 왕의 곁에서 그를 감시하는 러시아 통역관 김홍륙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³⁴

심지어 쉬삐이에르는 고종에게 모든 일은 오직 러시아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해결하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³⁵ 또한 그는 미국에 친밀한 감정을

에르가 친미파의 거두인 이완용을 배제하고 고종이 러시아의 충고만을 듣게 하였다고 했다(해링턴 著, 이광린 校註, 『개화기의 한미관계』(일조각, 1973), p. 66).

29 АВІРПИ, Ф.150, Оп.493, Д.7, ЛЛ.94-97о6(이원용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I』(선인, 2011), 47쪽).

30 해링턴(1973), 앞의 책, 312쪽.

31 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3. 19, p. 43. 알렌은 군사교관 니안스테드가 중병에 걸렸고, 러젠드르는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미국에 산 지 얼마되지 않아 프랑스와 연대가 있는 러시아와 친밀하다고 했으며, 서재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히며 친미세력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쉬삐이에르의 불만을 억눌렀다(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2. 16, p. 47).

32 『윤치호일기』, 1898년 3월 18일.

33 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10. 5, p. 32.

34 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10. 9, p. 32.

가지고 있는 이들을 자신의 공사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미국에 친근한 감정을 가진 조선인은 대한제국 정부에서 자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³⁶

쉬뻬이에르가 한국에 부임한 시기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이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뿌짜파의 파견 이후 추가적인 군사교관 확보가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말미암아 난항을 겪다가 1897년 7월 28일에 다시 군사교관이 파견되었다. 군사교관 파견을 반대하던 외부대신 이완용은 학부대신으로 전임되었다. 쉬뻬이에르는 재정고문 알렉시에프를 파견하고 재정 고문관 영국인 브라운을 해임하여 10월 6일 알렉시에프로 교체하게끔 하였고, 한러은행을 설립하고자 하였다.³⁷ 이처럼 쉬뻬이에르는 자국의 이권을 위해 고종의 신변을 담보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Ⅲ.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 이전 미국의 태도

아관파천 기간 동안 신변보호를 약속 받기 위하여 러시아에 민영환을 필두로 한 특사단을 파견하여 비밀협정을 맺은 고종에게 있어서³⁸ 김홍륙과 쉬뻬이에르 등 러시아 세력의 압박은 오히려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환궁직 전인 1896년 11월에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도피시키려고 하였던 음모가 탐지되기도 하였다.³⁹

35 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9. 17, p. 158.

36 DUSMK Vol. 13 No. 9. “Anti-American Remarks of New Russian Minister” Allen to John Sherman.

37 이민원(2002), 앞의 책, 2002, 218쪽, 221쪽, 243쪽.

38 서인한(2000), 앞의 책, 2000, 90-91쪽; 김영수, 「명례공약정과 한러비밀협정을 통해 본 모스크바대관식(1896)」, 『역사와 현실』 106호(2017), 304쪽.

특히 고종은 환궁 이후에 미국에 의지하였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인 1896년 12월 22일에, 1897년 5월 첫째 주 수요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만국우편회의에 조선측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고,⁴⁰ 의친왕 이강을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⁴¹ 그뿐만 아니라 고종은 1897년 10월 초에는 미국공사관 옆에 왕립도서관을 지어 임시피난처로 활용하려 했다. 알렌은 고종으로부터 미국공사관 사유지로 허락받은 Private road⁴²의 해당 증빙서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가 한성판윤(당시 친미파 李采淵)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알렌은 이렇게 하사 받은 길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는 유사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갈 것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궁궐을 넘어 영국공사관으로 간다면 환영해줄 것을 알지만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 공사관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가 다른 열강들을 불신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39 DUSMK Vol 13. "Reported Conspiracy in Seoul" John M. B. Sill to Richard Olney. 그런데, 이것이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을 타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40 DUSMK Vol 13, No. 37. No. 6.

41 DUSMK Vol 13, No. 40. John M. B. Sill to Richard Olney. 이는 일본에 의해서도 감지되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6)[宮廷錄事·施政任免一東·雜件] 報告第24號, 第48號, 加藤 辦理公使→大隈 外務大臣, 1897년 3월 31일).

42 현재 고종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길은 현재 고종이 아관파천 당시 파천한 길이라고 불리는 길로 문화재청에 의해 2016년 9월부터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2018년 10월에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는 알렌이 고종에게 하사받은 미국공사관 뒷길을 증명하기 위한 미국공사관 길(Private road)이다. 알렌은 유사시 미국공사관이 이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고종으로부터 받았지만, 각주 43)에도 보듯이 이 길은 고종이 유사시 미국공사관으로 파천하기 위한 정략이 담겨 있는 길이었다. 아관파천 보다는 미관파천과 더 관련이 깊다.

보호처를 말해줄 수 없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임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매우 명백하게 했고, 제가 승진함에 따라(역자주: 주한미국공사 취임) 이것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여기로 영구히 파견해 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소위 “왕립도서관”이라는 것을 우리 공사관 옆문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미국인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제가 그린 “왕립도서관”을 참조하십시오. 저는 그가 위험이 닥치면 이 도서관으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⁴³

이처럼 고종은 정식으로 미관파천을 타진하기 이전에도 꾸준히 파천의향을 내비쳤고, 이것이 좌절되자 왕립도서관을 세울 계획을 짰다. 고종의

43 My reasons for this opinion are as follows: - His Majesty does not wish to be taken to the Russian Legation again in case of disturbance; he knows he will be welcome at the British Legation just over the wall from his Palace, but does not wish to go there either. He is especially desirous of coming to our Legation, as I know perfectly well that he distrusts every other power. I have used every opportunity to impress upon him the fact that we cannot do for him as Russia did and we cannot keep him as a refugee. I have made this so clear, with the consent of my predecessor and still stronger since my promotion, that he now realizes that he cannot expect to obtain indefinite asylum here. He has therefore begun the building of a so-called "Library Building" on a piece of ground he acquired next door to us, and which is all surrounded by American property. I know that he intends to flee to this place in time of danger, thinking that his situation will afford him protection and that we will be compelled to protect him in protecting American property(DUSMK, Vol 13. No. 11, Mr Allen to Secretary of State(1897. 10. 13.)), 한철호(1998), 앞의 책, 234쪽. 이 도서관은 주한일본공사관의 기록을 보면 1898년 1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되어 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5)[美館 播遷계획이 暴露된 件에 관한 事實報告], 機密第7號, 加藤 辦理公使→西 外務大臣, 1898년 1월 24일). 이 도서관은 1899년 6월 8일 박정양, 민기선, 박기양 집에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3, (42) [爆裂彈 投入에 관한 件], 機密第47號, 日置 臨時代理公使→青木 外務大臣, 1899년 6월 15일)와 경운궁이 불이 났던 1904년 4월에 고종의 파천 처가 되었다.

의도대로라면 미국인이 주변에 있는 왕립도서관으로 인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성황후 장례식 때 러시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알렌에게 “신정왕후 장례식 때 파견한 것처럼 미군을 경호로 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알렌은 “이들은 미국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보호되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전임 미국공사 쉴(John M. B. Sill)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⁴⁴

쉴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대한제국 내의 동요에 대처할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현재 대한제국의 군대는 이러한 동요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군 파견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고종은 1897년 4월 23일 쉴이 제물포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군사교관을 더 부르는 문제에 관련하여 알렌에게 의견을 구했다. 알렌은 이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고, 26일에 가토 마쓰오(加藤增雄)가 고종을 직접 알현하여 미국이 더 많은 군사교관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거부하는 의견을 냈다. 또한 미국공사관에 자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미국공사관은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⁴⁵

당시 베베르는 군사교관 파견을 증가시키는 것을 외부대신 이완용이 거부하자 군부대신 심상훈과 상의하였다. 이완용은 이에 이 문제가 외부의 문제이지 군부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가 베베르에 의해 평양으로 좌천되었고, 친러파 민종묵(閔種默)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미국공사관은 친미파 이완용의 좌천에 대해 “조선에서 커다란 손실이고 미국의 이권 확보에 대해서도 난점으로 작용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해 아쉬

44 *KAR 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11. 27, pp. 37-38.

45 *KAR III*,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1897. 5. 10, pp. 26-27.

옴만 드러낼 뿐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⁴⁶

러시아 군사교관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주한미국공사 쉴이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경계한 일본은 주미일본공사 호시 도루(星亨)로 하여금 미 국무장관에게 당시 전(前) 주한미국공사 쉴의 태도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⁷

이처럼 미국은 미관파천 요청 이전 조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미관파천이 있기 얼마 전 당시 미국무장관 존 셔먼은 1897년 7월 17일에 알렌에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으며,⁴⁸ 미관파천 직전, 미국 측의 거중조정에 대한 입장은 대한제국이 바라는 거중조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곧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양 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중조정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⁴⁹

이렇게 미국은 대한제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대한제국 선포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14일 18번 외교 문서로 보내온 조선의 왕이 황제의 칭호를 획득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미 국무부는 폐하가 황제 칭호를 상정한 것에 대해 신중하기를 바라며 귀하가 그랬듯이 이것이 정부가 바뀐 것을 이해하시고, 단순히 “최고위자의 국가 지배”의 부분에서 변한 그것뿐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46 *KAR* III,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1897. 10. 9, pp. 32-33.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40)[前任 駐韓美國 公使 실의 舉動에 관한 件], 密送第62號,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在京城 辨理公使 加藤增雄, 1897년 7월 24일.

48 『미국의 대한정책(1834-1950)(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1Department of State, U.S. Unites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1834-1950)』(한림대학교 출판부, 1987), 24쪽.

49 *KAR* III, John Sherman to Horace N. Allen 1897. 11. 19, pp. 160-161.

힘을 얻게 되면 또는 왕조의, 혹은 헌법상의 국가 기능과 조직 변화가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황제의 칭호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공사관의 지위도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귀하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⁵⁰

미국이 고종의 황제 칭호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쉬삐에르의 예상⁵¹과는 다르게 미국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IV.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와 미국의 활용

1.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

대한제국 수립 직후인 1897년 말 고종은 미국공사관⁵²으로 대피하려고

50 I have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No. 18, Diplomatic Series, of the 14th ultimo, in relation to the ceremony attending the assumption by the king of Korea of the title of Emperor. The Department commends your prudence in dealing with His Majesty's assumption of the Imperial title and understands, as you do, that is not a change of Government, but merely a change of style on the part of "The Chief Ruler of the Country", and as such needs no formal entrance upon new relations, as in the case of a revolutionary Government assuming power, or a dynastic or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a state. Should any other Governments take official cognizance of the change in His Majesty's title, and re-accredit their envoys accordingly, you will at once report the fact to the Department and await further instructions(KAR^{III}, John Sherman to Horace N. Allen, 1897, 11, 30, p. 161).

51 АВПРИ. Ф.150, Оп.493, Д.7, Л.128-3106(이원용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III』(선인, 2011), 65쪽).

52 미국공사관은 1884년 4월 정동에 개설되었다. 초대주미공사 푸트(Lucius H. Foote)는 1883년 5월 12일 조선에 도착하였고, 뮐렌도르프의 집에 있다가 민영교의 기와집 141칸, 빈대지 250칸, 그리고 閔啟鎬의 기와집 120칸과 빈대지 300칸, 김감역의 기와

표1-미관파천 시도 전후의 상황(1897-1898)

년월일	사건	전거
1897. 02. 20.	고종,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 단행	『승정원일기』
1897. 03. 22.	고종, 만국우편회의에 이범진, 민상호 파견	『주한일본공사관기록』 DUSMK
1897. 04. 23.	고종, 미군 군사교관 요청	『구한국외교문서』 「미안」 KAR III
1897. 05. 09.	고종, 의화군 미국 유학 요청 (실제 파견은 1900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DUSMK
1897. 06.	김홍륙, 이범진 미국으로 가게 하는데 도움 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7. 07.	김홍륙, 박정양 탄핵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7. 07. 17.	존 셔먼, 정치적 문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	KAR III
1897. 07. 27.	알렌, 미 공사 취임	KAR III
1897. 07. 28.	러시아 군사 파견	KAR III
1897. 08.	슈베이에르, 주한러시아공사로 부임	KAR III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7. 09. 17.	슈베이에르, 조선에 대한 모든 것 러시아를 통해 할 것을 고종에게 지시	DUSMK
1897. 10. 03.	슈베이에르, 친미파 배제 선언	DUSMK
1897. 10. 03.	고종, 미국공사관 근처 왕립도서관 건축 지시	DUSMK
1897. 10. 12.	고종, 황제즉위식 거행	『고종실록』
1897. 11. 19.	미국, 고종의 거중조정 요청 거부	KAR II
1897. 11. 22.	명성황후 장례식 때 미군 파견 거부	KAR III
1897. 11. 30.	미국, 대한제국의 공식 인정을 거부	KAR II
1897. 12. 24.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	KAR II
1898. 01. 08.	알렌, 대한제국 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미국이 친절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함	KAR III
1898. 01. 19.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에 대한 소문이 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8. 01. 26.	고종, 알렌에게 Boston 함대의 병사들을 파견 받아 보호 받을 것을 요청.	KAR III

집 9칸과 초가집 6칸 및 빈대지를 사들여 한옥 그대로 공사관을 사용하였다. 1902년 미국공사관 지도(DUSMK, Vol 13, No. 29, Mr Allen to Secretary of State)에 의하면 면적은 3.5에이커(약 1만 4천㎡)이다.

했다. 1897년 12월 24일 밤, 고종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환관을 알렌에게 보내어 “러시아가 고종의 보호를 위해서 병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정보를 넘기지 알려주었다.

위 표와 같이 러시아 군사는 이미 1897년 7월 28일에 파견되어 있던 상태였다. 고종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렌에게 자문했지만, 알렌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미관파천을 요청했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24일 밤 폐하가 가장 신뢰하는 환관을 제게 보내어 러시아가 그의 감시를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정보를 저에게 넘기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저에게 자문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왕과 궁전을 감시하는 것에 동의했던 밀담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함대가 곳곳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항에서 어떠한 충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일본이 또한 군대를 파견할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폐하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대답하길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폐하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영국과 일본이 연합한다면, 그리고 영국이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다면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미국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그에게 최악의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를 여기에 불러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온다고 해도 그를 보호해줄 수 없으며 비록 미국공사관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그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공사관 파천 요청 이후에 폐하의 상황은 전보다 더 악화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었고,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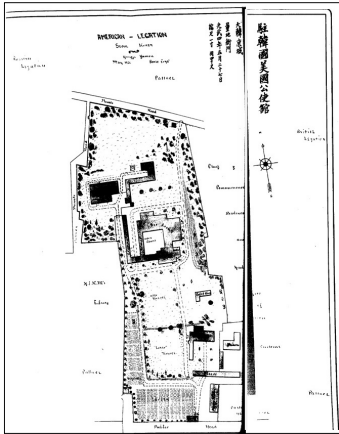


그림1-광무 4년(1900년) 5월 27일
미국공사관 리모델링 계획안(DUSMK, "Scale
plan of the grounds and buildings of
the Legation" Vol 13. No. 251, Mr Allen
to Secretary of State에서 발췌). 대략적인
미국공사관 주변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며 우리가
폐하에게 가장 친절한 감정으로 즐겁게
해주지만, 우리는 지금보다도 폐하의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해야 합니다.⁵³

53 …… On the night of the 24th instant, His Majesty sent his most trusted Eunuch to me with the information that Russia was about to send soldiers here or his protection, and asked me what he should do. Mindful of the secret convention by which Russia had agreed to protect the King and the Palace, and Knowing that the Russian fleet was pretty well engaged elsewhere this did not seem strange to me, and I had to reply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I had no advice to offer. He then went on to say that the Japanese were intending to send soldiers as well and that in such case, His Majesty's life would be in danger. I replied that I thought not, but he went on to say that they understood that England and Japan had united, and if the former should keep Russia engaged, the latter could work her will in Korea, and he plainly suggested asylum at this Legation for His Majesty I very promptly replied that would be the worst thing for him; I could not invite him here; I could not protect him if he came, and even if he should succeed in getting inside our gates, I would be unable to keep him long, and his condition after such an attempt would be worse than before; he had asked for Russian protection and it was for their interests to see that he got it, and while we entertain the kindest feeling toward His Majesty we would deeply regret being in any way instrumental in making his condition any worse than it now is(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12. 27, p. 40); 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3. 8, p. 163; 한철호(1998), 앞의 책, 234-2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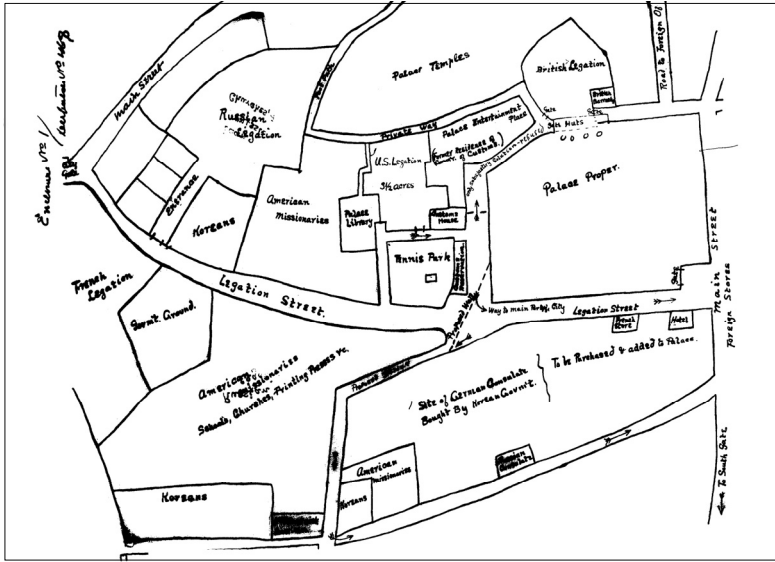


그림2-1902년 당시 정동 지도(1902. 5. 24)(DUSMK, Vol 13. No. 29,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년 1월, 고종이 거처를 미국공사관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소문이 일본공사인 가토 마쓰오로부터 탐지되었다. 당시 시위대는 러시아 군사기관의 지휘 아래 있고, 김홍륙을 비롯한 친러파 인물들이 고종을 늘 감시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1월 13일 미관파천설이 나돌자 쉬삐이에르는 당황하여 고종을 추궁했고, 고종은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쉬삐이에르는 한 번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고종을 다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데려간다고 하였다. 가토 마쓰오는 이런 사실을 알렌에게 물어 보았으나 알렌은 고종의 미관파천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하였다.⁵⁴ 위의 가토 마쓰오의 지적대로 알렌은 다음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5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5)[美館播遷계획이 暴露된 件에 관한 事實報告], 機密第7號, 加藤 辦理公使→西 外務大臣, 1898년 1월 24일.

오늘 폐하가 제게 보호를 요청했고 보스턴 함대 함장 와일드가 필요한 경호원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의 독립신문 1월 26일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추출하여 보냅니다. 저는 이 전보가 워싱턴에서 신빙성을 갖는다고 믿었고, 동아시아 신문에 복사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공사관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음모와 관련해서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급된 위의 전보 날짜와 관련하여 폐하가 아닌 누군가가 뜬소문을 퍼뜨렸으며 그 뜬소문은 폐하가 미국공사관으로 파견하려고 했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 사항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⁵⁵

1898년 1월 26일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에 관한 소식과 보스턴 함 와일드 함장에게 경호병 파견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대한제국내의 『독립신문』에서 『뉴욕 헤럴드 신문』으로 옮겨가 돌아왔다. 그러나 알렌은 “고종이 미국공사관으로 대피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에 대해 거부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명성황후 장례식 당시 보호병 파견을 요구받은 사항을 거부했다.”라고 미국에 밝혔다.

미관파천에 대한 알렌의 보고를 받은 존 셔먼 미국 미국무장관은 다음과

55 I have the honor to hand you enclosed an extract from the Seoul “Independent” of today, being an interview with myself in regard to a telegram from Seoul dated January 26 to the New York “Herald” to refused to furnish the necessary guard. I see this telegram obtained some credence in Washington and is being copied by the news-papers of the Far East. It is very annoying to be dragged thus into unpleasant prominence in connection with these Seoul intrigues, when this Legation is known here to be entirely from such connection. About the date of the above cited telegram, some one, not His Majesty, did start a rumor that His Majesty was about to take refuge at this Legation, but as I had made it perfectly plain to him that I could not allow such a course, I paid little attention to it(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3. 8, p. 163).

같이 회신하였다.

지난달 8일에 주신 82번의 서신, 황제가 미국공사관으로 파견한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미 국무부는 이 민감한 문제에 신중한 대처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다.⁵⁶

미국은 고종의 미관파천 요청이 민감한 문제이니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알렌에게 당부하였다. 당시 고종에게 최우선시되는 사항은 신변 안전이었으므로 경호병 문제에 대해서 계속 외국에 의지하였다. 그는 법률고문관 그레이트 하우스(Greathouse)에게 밀지를 보내 외국 군대를 고용하여 궁궐 수비를 보충하게끔 하였다. 다만, 러시아 군사교관 철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봉환(張鳳煥)을 시켜 러시아공사와 교섭하였다. 따라서 영국·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에서 30명을 고용하여 9월 15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들에 대한 배척 운동을 벌였다.⁵⁷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러시아는 러시아 군사교관을 파견한 이후부터 조선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할 생각을 했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일련의 생존권 위협을 받은 고종이 러시아에 특사까지 보내며 파견 받은 러시아 군사교관은 쉬뻬이에르의 압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고종에게 독이

56 I have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despatch No.82. of the 8th ultimo, in relation to the rumor, that the Emperor of Korea is to take refuge at your legation, and expressing your annoyance threat. In reply, I have to inform you, that this Department commends the prudence shown by you in this delicate matter(KAR^{III}, John Sherman to Horace N. Allen, 1898. 4. 19, p. 163).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33)30명의 雇傭 外國人巡查 排斥의 件] 機密第39號, 加藤 辨理公使増雄→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1898년 10월 5일. 이 고용은 결국 독립협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외국 경호 병력 반대 의견을 관철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하(2006), 앞의 책, 413-418쪽을 참조.

되어 돌아왔다. 쉬빼이에르 뿐만 아니라 김홍륙 등 러시아 통역관 등의 친미세력에 대한 견제 속에서 고종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공사관으로 파견하는 일이었다.

2. 미국의 미관파천 시도 활용

주한미국공사 알렌은 고종의 미관파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저는 지난 저녁 국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항에 대해 알리는 전보를 첨부하였고, 국왕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께 보낸 것에 대해 답으로 조의를 표하는 전보를 보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하며 이 전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제가 응하기를 거부한 모든 요구에 대해 사람들이 도움과 조언을 요청했고, 국왕은 지속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어떠한 곤경 사항을 발견할 시 서울에서 유일한 중립 지역인 미국공사관으로 파천을 거부당하자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였으며 이때 그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한 개인적 관심, 예컨대 조의를 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상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국왕의 호의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전보가 보내지기를 희망합니다.⁵⁸

58 I have the honor to append confirmation of my telegram of last evening informing you of the death of the mother of His Majesty, and suggesting the advisability sending a telegram of condolence in reply to one which I understand His Majesty sent to The president upon the death of the latter's mother. I did not send this telegram until after due deliberation. My reasons for sending it were, that I am, owing to the war excitement, constantly being asked for advise and assistance by these people,

1898년 1월 고종의 어머니인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민씨(閔氏)가 사망하였을 때 알렌은 미국에 이에 대한 조의 표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알렌은 1월 17일 오후 4시와 18일 오후 3시에 고종을 만나 위로해 주었다.⁵⁹

대한제국 선포 직후 미관파천 시도 시기는 앞서 언급한 1897년 12월과 이듬해 1월을 전후한 시기였다. 알렌은 이 미관파천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대한제국 내에서 자국 이권확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알렌은 미국이 여흥부대부인 민씨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고종이 지속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미적 기조를 유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알렌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헝가리 외교 문서에서는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의심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한 나라로 행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라고 보고 있다.⁶⁰ 이를 직접 실행했던 것은 알렌이었다.

알렌은 고종 탄신 50주년에도 “대통령이 축하 전보를 보내준다면 여기 있는 미국인들의 이권에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¹ 또한 알렌은 고종에게

all of which requests I decline to accede to; His Majesty seems to feel hurt at my persistent refusal to offer him asylum at this Legation, to which he wishes to come in case of trouble between the Japanese and Russians, as it is the only strictly neutral place in Seoul. He knows now that this is impossible, and regrets it, so that the opportunity to show him a little kind personal attention, such as would be the sending of telegram of condolence, seems to be very timely. We now have very considerable commercial interests to protect here, and I need the good will of His Majesty. I hope the telegram will be sent(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1. 10, p. 162). 실제 알렌은 여흥대부인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하였다(『日記1』(장서각 소장K2-250) 이하 『日記』, 광무 2년 1월 13일).

59 『日記1』 광무 2년(1898) 1월 17일, 18일.

60 엄찬호, 『고종의 대외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87쪽의 각주 95번 『한국근대사에 대한 자료: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외교보고서(1885-1913)』(신원문화사, 1992), 90쪽에서 재인용.

61 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901. 7. 19, p. 169.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미국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지 않게 하는 선에서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추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종의 미관파천 요청에 대해 알렌은 고종이 미국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속해서 파천신청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거부를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에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나 조의를 표하게끔 하였다. 알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제국 내) 미국의 영향력은 어떠한 힘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미국의 새로운 많은 이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대한제국과 미국의) 친근한 관계의 진척, 교육, 그와 비슷한 일들에 대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심 없는 미국의 태도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이) 미국의 조언을 종종 구합니다.⁶²

알렌은 대한제국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외국 대표단 중에서도 대한제국의 문제 개입에 대해 자신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⁶³ 알렌 등 대한제국 내 미국인들이 그들의 이권과 미국인들의 권리 및 자신을

62 …… American influence is as great as it could be, unbacked by any show of force. It is probably as great as we have any desire it should be, and aside from the protection of our new considerable interests, it tends only to the furtherance of friendly relations and the encouragement of educational and similar work. From the very disinterestedness of our position, America is often turned to for advice(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7. 9. 17, p. 159).

63 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12. 13, p. 164. 구미학자들은 알렌이 조선인들이 미국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밝혔다(Wayne Patterson and Hilary Conroy, *Duality and Dominance: A Century of Korean-American Relations*(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2), p. 5).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의 미국에 대한 기대를 이용한 것은 당시의 한미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1897년 4월 12일 서울-제물포 선이 부설된 이후,⁶⁴ 1898년 2월 25일에는 미국인 콜브란이 서울전기회사로부터 계약하여 전차부설권을 얻었다.⁶⁵ 알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순수하게 상업적인 이유로 힌트와 콜브란이 차관을 제공 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종은 이에 기뻐했다.⁶⁶

그러나 이후 1904년 윤치호(尹致昊)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미국이 고종의 안보를 담보로 하여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제 브라운(Brown) 씨가 말하기를, 황제가 콜브란과 보스트윅과 전기회사에 7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그들에게 전차 사업에 관한 모든 계획을 위임하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권리 양도는 콜브란과 보스트윅, 그리고 전기회사 측에서의 어떤 보상 서비스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학균(李學均)이 바로 손탁(Sontag) 양 자택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지독하게 기분 나쁜 계약을 체결한 악당이다. 황제는 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처음부터 50만 원을 지급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그를 통해 거짓으로 약속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다!⁶⁷

윤치호의 말대로 미국은 대한제국내의 이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의 전차·전기 사업과 상수도사업에 대해 영국인 찬스(Chance)가 브라운과 같이 연합하여 미국인들의 사업을 얻고자 하였으나

64 KAR^{III},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1897. 4. 12, p. 212.

65 KAR^{III}, Horace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1898. 2. 15, p. 213.

66 KAR^{III}, Gordon Paddock to Secretary of State, 1901. 11. 1, p. 169.

67 『윤치호일기』, 1904년 4월 24일.

알렌의 반대가 있었다. 파블로프는 친러파 이용익을 앞세워 광산 개발에 25년 동안 프랑스 차관을 도입하게끔 하였다. 이는 미국인의 이권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 미국은 일찍이 대한제국의 금광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1889년 12월에는 알렌의 외교적 수완으로 미국인 피어스(Aillard I. Pierce)가 광무국(廣務局)에 고용되어 면밀한 탐사가 이루어졌다. 청일전쟁 이후인 1895년 모스(James R. Morse)는 대한제국정부와 협의하여 운산 광산채굴권을 확보하여 1896년 4월 정식으로 운산 금광 채굴권을 얻어 5월에는 광산기술자를 운산에 파견하였다.

모스가 자본이 부족하여 채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자, 알렌은 앞서 수도 및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헛트를 끌어들었다. 헛트는 파세트(J. Sloat Fasset)를 끌어들이어 사업을 확장하였고, 헛트는 한국과실과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 아닌 미국인 단독 경영을 제안했고, 1897년 3월 27일에는 계약을 수정하여 1899년부터 미국의 동양광업개발회사가 단독으로 경영하게 되었다.⁶⁸ 이처럼 알렌은 고종이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이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맺음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하고 있을 당시 1896년 6월부터 친미파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한성도시개조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환공 이후에는 미국 만국우편회의에 이범진과 민상호를 파견하였다. 또한 의친왕 이강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고

68 이배용,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한국연구원, 1984), 56-83쪽.

주장하던 조선주재군무관 총참모부 대령 스트렐비치키는 1897년 1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이 조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가할 정도였다.

김홍륙은 친미파를 항상 경계하여 박정양과 고종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는 친미세력을 견제하였다. 러시아는 고종의 환궁 이후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의 친미파세력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고종의 미국에 관한 관심에 비교해 미국은 조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명성황후 장례식 당시 고종의 미군 보호 요청 또한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미국공사관 뒤편의 길을 미국공사관 소유로 하게끔 하였고, 미국공사관 근처에 왕립도서관 건축을 지시하여 유사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알렌은 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고종을 보호하게 될 상황이 닥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의도를 계속 내보이던 고종은 결국 정식으로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을 타진한다.

러시아세력의 압박과 친모인 여흥부대부인 민씨의 사망으로 인한 고종의 심경변화는 고종이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한 계기로 보인다. 고종이 미국공사관으로 파천을 타진하였을 때 알렌은 이를 경계하는 뜻을 미국에 보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이를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알렌의 태도는 청일전쟁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고종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당시 주한미국공사 쉘의 태도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알렌은 미국이 여흥부대부인의 죽음에 대한 조의 표시를 하게 하였다. 미관파천 거부로 고종이 미국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미관파천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고종이 호의적인 미국관을 갖도록 하려는 그의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은 철도부설권과 금광채굴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두고 윤치호는 나중에 미국이 거짓 보호를 이유로 이권을 확보해 간다고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미관파천 또한 춘생문사건과 아관파천처럼 고종이 절대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인가? 아니면 김홍륙과 쉬뵘이에르의 위협에 따른 고종 본인의 안위를 찾기 위한 궁여지책인가? 대한제국기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는 단지 그의 안위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친러세력이 득세한 당시의 상황에서 친미파 중심의 세력 개편, 그 가운데에서 대한제국을 확고히 하려던 고종의 한계점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전제군주를 표방하면서 강대국 미국에 의지하여 외교적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친미파 중심의 독립협회 세력들은 고종의 황제권 강화에 제동을 걸었고 고종은 러시아세력을 일소하고 이들을 등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탄압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인 친미파이자 독립협회의 발기인인 당시 한성판윤 이채연(李采淵)이 독립협회의 탄압과 고종의 입장을 두고 고민을 겪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⁶⁹ 따라서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는 그가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 주한미국공사 알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제국 초기 한미관계를 가장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69 장경호, 「고종대 한성판윤 이채연의 정치성향과 활동」, 『郷土서울』 85호(2013), 93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구한국의외교문서』.
『뫼텔주교일기』.
『승정원일기』.
『윤치호일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日記1』(장서각 소장K2-250).

De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Korea. 1885-1905(M134) 22 Rolls.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Consuls in Seoul. 1886-1906(M167) 2 Rolls.
Spencer J. Palmer, e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7-189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Scott S. Burnett, ed., *Korean-American Relations, 1896-190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2. 단행본

- H.N. 알렌 저,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한말 외국인 기록 4)』. 집문당, 1999.
김영수, 『미쩨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경인문화사, 2012.
김윤희, 『이완용평전』. 한겨레출판사, 2011.
김종현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II』. 선인, 2011.
문일평 저·이광린 교주,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2016.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한국사학, 2005.
이민원,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2002.
이배용,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 한국연구원, 1984.
한철호, 『친미개화파연구』. 국학자료원, 1998.
해링턴 저 이광린 교주, 『개화기의 한미관계』. 일조각, 1973.
현광호, 『개항기 조선』. 유니스토리, 2015.
홍용호 역, 『러시아 문서 번역집 V』. 선인, 2011.

3. 논문

김영수, 「명례궁약정과 한러비밀협정을 통해본 모스크바대관식(1896)」. 『역사와 현실』 106, 2017, 291-323쪽

김영수, 「주한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역사학보』 233, 2017, 151-180쪽.

장경호, 「청일전쟁 직전 고종의 대미의존 심화와 미관파천 시도」. 『한국근현대사 연구』 86, 2018, 41-67쪽.

_____, 「아관파천 전후(1896-1898) 정치권력 변화와 김홍륙 독차사건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89-117쪽.

Jeffery M. Dorwart, "The Independent Minister: John M. B. Sill and the Struggle against Japanese Expansion in Korea, 1894-1897."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4-4, 1975, pp. 485-502.

국문초록

대한제국 선포 직후 고종은 미국공사관으로의 파천을 타진하였고,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의 큰 변동을 가져온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위협을 받게 된 고종은 영국과 미국공사관으로 각각 피신을 타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후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피신에는 성공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고종이 강대국의 힘을 빌려 세력균형을 꾀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강대국의 힘을 빌려 세력균형을 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랐다.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어 통역관 김홍륙은 러시아의 힘을 입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러시아의 압박은 고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고종은 다시금 미국에 의지하게 되었다. 환궁 직후 다시금 친미 행보를 보이던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미관파천(美館播遷)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고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전략을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한계점을 나타냈던 것을 의미한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1. 15.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고종(King Ko-jong), 미국(America), 미관파천 시도(King Kojong's Escape attempt to the American Legation), 쉬뻬이에르(A. H. Шпейер), 알렌(Horace. N. Allen)

Abstracts

King Kojong's Escape attempt to the American Legation directly after declaring the Korean Empire

Chang, Kyoung-ho

King Kojong tried to escape to the American Legation directly after declaring the Korean Empire. The plan was failed but it had many historic meanings. After Sino-Japanese war and King Kojong tried to escape to the American Legation and British Legation but these tryings were failed. And then he could escape to the Russian Legation. These facts shows that he aims for power balance by relying on powerful nation.

However, maintaining power balance relying on powerful nation was a lot of hard work. After Korea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俄館播遷), Russia interpreter Kim Hong ruk(金鴻陸) exercised absolute power for his profit and Russian minister A. H. Шпеер pursued a very aggressive foreign policy for his country. This pressures were great pressure on King Kojong and King Kojong tried Korean Royal refuge at the America legation soon after that King Kojong proclaimed Korea an empire in 1897.

This shows King Kojong had a small base of political support and he established a diplomacy of pro-United States. And he had diplomatic strategy by relying on America but it showed the limitation.